

지역 소식통

고창군, 배순민 KT융합 기술원소장 초청 강연

전북 고창군이 16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배순민(KT 융합기술원) 소장을 초청해 '생성AI, ChatGPT가 뭐길래?'라는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ChatGPT와 관련된 긍정적인 활용 사례,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과 안정성의 우려 등 역기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교육, 경제,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배순민 소장은 "AI 자체가 우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협력을 잘하는 것이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정읍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인위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기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 크기에 따라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유재현(유안관리기술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및 절차, 실시 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김형우 부시장은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주변과 사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부터 지키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 시민과 정읍시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아름다운 바다 · 산과 함께'

## 고창군 서해랑길, 명품 걷기코스 큰 인기

전북 고창군에 바다와 산을 따라 걷는 명품 걷기코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서해랑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따라 걸으면서 노을과 이어지는 형형색색의 물색, 다양한 해안 숲 생태계를 체험하고 있다.

고창 서해랑길 대표 3개 코스에는 41

코스, 42코스, 43코스가 있다. 코스에 따라 바다전망대, 동호항 염전, 서해안 비람공원, 갯벌 식물원, 선운산 기암괴석 등의 주요 지역을 잇고 있다.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로 조성되어 있어 자연과 호흡하며 주변 경관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고



전북 고창군에 바다와 산을 따라 걷는 명품 걷기코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창군이 함께 하는 서해랑길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풍찬기도 프로그램(풍요롭게 찬란하게 걸어가게 건강하게)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이다. 보물섬 의죽도 생태체험, 고창 오란다 만들기 등의 주요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사와 함께하는 고창 서해랑길 프로그램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씩 운영하는데 달별로 초청된 명사와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함께 걸을 수 있다. 마을버스 세계 일주 여행가 임택, 지리산 시인 이원규, 해양 문화 칼럼니스트 김준 남 등이 초청된 명사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는 고창 방문의 해로 천혜의 자연과 함께 트레킹도 즐기고 또한 고창에는 많은 먹거리, 볼거리들이 방문객들을 기다리니 오셔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걷기 프로그램은 주민공청여행사 팜팜(063-563-8808)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축구종목 40대부 경기가 지난 14일과 16일 정읍시 태안성황축구장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아태FC팀 우승 · 인도팀(MGF5) 준우승

### 정읍시,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축구종목 40대부 경기 성료

파사로운 햇살이 눈부신 꽃내음 가득한 5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축구종목 40대부 경기가 지난 14일과 16일 정읍시 태안성황축구장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국제마스터스협회(IMGA)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도와 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30세 이상 은퇴선수들과 생활체육인 총 1만여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수준 높은 대회로써,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었다.

정읍에서는 태안성황축구장에서 축구종목 40대부 경기가 열려 국내 2개 팀(아태FC, 전북도청OB), 국외 3개팀(몽골 2, 인도 1)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1일차 경기 결과, 인도팀과 아태FC팀이 결승전에 올랐고 열린 경쟁 끝에 아태FC팀이 우승, 인도팀(MGF5)이 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여 소속 팀의 명예를 빛냈다.

한편 정읍시는 경기일정이 없는 15일에 정읍을 방문해 준 인도, 몽골 선수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전북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수단은 부안 채석장을 찾아 신뜻한 비웃음을 만끽한 후,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푸르른 산의 절경을 눈에 담았다. 또한 전통차집을 방문하여 정읍만의 특별한 차인 생화차를 마셔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되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정읍시장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국제 대회의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모든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가 전라북도, 그리고 정읍시의 체육 발전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인명피해 제로 · 재산피해 최소화" 실과소에 당부

### 정읍시, 우기철 대비 공사현장 · 피해우려지역 기동감찰 실시... 17일부터 2주동안

정읍시는 17일부터 2주동안 우기철 대비 공사현장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기동감찰은 우기철 이전 호우 피해 예방업무 추진부서의 대비상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우기철에 발생이 예상되는 시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감찰반은 감사과 직원(기술직렬)과 외부전문감사관(기술사 또는 박사학

위자)으로 구성하여 공사현장과 호우 피해 예방업무 관련부서를 점검한다.

공사현장 점검은 배수처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와 비상발전기, 양수기,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한 계획이며, 관련부서 점검은 절개지, 배수펌프장, 하천, 저수지, 도로, 지하차도, 상하수도에 대한 우기철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3월 대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감사관과 동행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현기 수평 및 지적사항 보완 통보로 정읍시내 대형공사 현장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도한바 있다.

앞서 정읍시장은 우기철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모든 실과소에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학전교 찾아 교량분야 집중안전점검 실시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가 전날(15일) 고창읍 읍내리 소재 (구)학전교를 찾아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노형수 부군수를 필두로 군 관계 공무원, 안전점검 전문기관, 토목시공·토질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최근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은 교각 기둥이 교량 상판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반대 쪽 끝은 교각 기둥이 교



교대상으로 선정해 교량 신축이음부, 교대·교각 등 교량시설 전반의 안전 상태를 살폈다.

감대상으로 선정해 교량 신축이음부, 교대·교각 등 교량시설 전반의 안전 상태를 살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경예산 요청,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는 "특히 올해는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석동산 공중화장실 설치 개방

부안군은 군민들이 더욱 여유롭고 쾌적한 석동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석동산 산책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개방했다고 밝혔다.

석동산은 연곡공원으로 지난 2020년 7월 공원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편백숲이 있는 산책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석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해 BF(장

애물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본인 증까지 완료하여 지난 5월 2일부터 공중화장실 개방 운영을 시작했다.

석동산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공중화장실이 생겨서 코스별로 있는 산책로를 더욱 여유롭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가워했다.

부안군청 도시공원과장은 포스트코로나9 시대에 맞춰 생활권 힐링장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원 산책로 등에 있는 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